

월간

공군



제548호

02

Contents

04 **이벤트 결과**
2024 새해 이벤트
'공군 응원 문구' 우수작 모음!

06 **기획**
네 발의 전우, 군견
ROKAF Military Dog



12 **특집 I**
<하사하자>, <하사더하자>
종영 기념 장형석 하사 인터뷰

16 **특집 II**
父子 공군인의 편지



18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KT-1(웅비)



20 **Aero Detail**
주요국의 수송기



25 **공테리어**
독립! 자취방은 어떻게 꾸며야 할까?

표 지 (앞) 밤하늘의 겨울 별자리(큰개자리)와 군견(일병 문준혁)
표 지 (뒤) 설날에 한복 입고 세배하는 하늘이프렌즈(최수정 작가)
발 행 일 자 2024년 2월 1일(통권 제548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영수
편 집 인 공군본부 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대령 최윤석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이다현, 대위 서현옥
전 자 도 서 관 www.afzine.co.kr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4010029)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p>26 항공우주박물관 답사기 미국 II. 뉴욕</p> 	<p>42 영화로운 나날 「괴물」 내용과 형식은 같이 가야 한다</p>
<p>30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p>	<p>44 트렌드가 보인다 천년 넘게 영롱히 빛나는 나전칠기, 한류의 중심에 서다</p>
<p>36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후추: 황금의 가치</p>	<p>46 생각하는 그림 구정(舊正)이 아니라 설날입니다</p>
<p>38 동서양 그랜드투어 대충 살자. 자신의 곡을 그대로 베꼈던 모차르트처럼! 「플루트 협주곡 2번」</p>	<p>48 책 읽는 공군 사막과 바다 (1여단 8325부대 병장 이하민)</p>
<p>40 한 달, 한 권 『흑뢰성』 과거의 시간과 공정한 미스터리의 절묘한 균형</p>	<p>49 공군인의 하루 밤하늘의 반짝이는 물병 (공군사관학교 수송대 병장 정하민)</p>
<p>40 한 달, 한 권 『흑뢰성』 과거의 시간과 공정한 미스터리의 절묘한 균형</p>	<p>50 토닥토닥 2월의 목소리</p>
<p>40 한 달, 한 권 『흑뢰성』 과거의 시간과 공정한 미스터리의 절묘한 균형</p>	<p>51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p>

월간
공군

2024 새해 이벤트



'공군 응원 문구' 우수작 모음!

북한의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정예공군이 있기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등하교 중에 11전비에서 이륙하는 F-15K 전투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답게 보이지는 않지만, 저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을 계속 지켜주시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과 저도 꼭 공군 부사관이 되어 국가를 지키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공군 항상 응원합니다!

from, 김도O

필승!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예공군의 현역병으로 입대한 지 어느덧 8개월가량 되어갑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니 조종사가 되고 싶어 공군사관학교 입학 준비 중입니다. 평소 공군 공식 유튜브 채널(100인의 공군, 하사더하자 등) 콘텐츠와 월간 『공군』, SNS 게시물도 틈틈이 보는데 이번에 신년 이벤트를 한다고 해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적이 대한민국 영공을 넘보지 못하게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하고, 이 시간에도 조국 영공수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하며, 2023년 한 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공군의 일원으로서 즉.강.끝,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정신으로 사이버 전장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파이팅입니다! Fight Tonight!

from, 김유O

'공군 새해 이벤트' 칠행시로 갑진년 새해 공군을 응원합니다.

공: 공군 새해 이벤트 가즈아~
 군: 군더더기 없는 상큼한 문구로
 새: 새해의 다짐을 모두 담아
 해: 해돋이의 뜨거운 기운으로
 이: 이등병부터 참모총장까지 푹푹 뭉쳐
 벤: 벤자민 프랭클린의 계몽주의 정신을 반영해
 트: 트라이앵글과 같은 삼각편대로 우주까지 상승하는
 2024년이 되길 바랍니다.

from, 김병O

오랜 기간 월간 『공군』이나 공군 SNS를 보면서 많은 분이 각자 맡은 임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군 장병과 군무원, 군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from, 이윤O

필승!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가장 높은 힘, 우리 공군! 밤낮없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땀 흘리며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공군 장병분들이 있으시기에 국민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밝은 2024 청룡의 해를 맞이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공군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또한, 많은 아이에게 멋진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저 또한 '공군'이라는 멋진 꿈을 품은 학생이라, 항상 감사한 마음과 꿈에 대한 애정, 자부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생활합니다! 소중한 꿈을 안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년 다양하고 많은 이벤트로 국민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공군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보물 공군! 나라를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from, 조은O

안녕하세요! 공군 조종사를 꿈꾸는 초등학교생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덕분에 우리나라가 빛이 납니다.
공군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누나도 장래희망이
공군 조종사인데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최고!!! 감사합니다.

from. 조상O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화로운 생활이 당연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지만 공군인들의 노력이란 생각이 들 때면
이런 당연한 일상들을 누리는 게 소중한 감사한 일이란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일상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마음 한편에 공군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그 누구보다 공군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멋진 모습으로 저희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from. 황서O

2023년에도 365일 24시간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에도 안전하고 사고 없는 공군이 되길 응원합니다.
몇 년 후 공군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선발돼 함께
국가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from. 김도O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장병
여러분!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치시는
직업군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공군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공군에서 복무하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처럼 강하고 멋진
공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부대 차려!
대한민국 공군 전우께 대하여 경례!
필승!

from. 서성O

비 전이 있는 공군
행 동하는 공군
기 적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비행기로 삼행시 지어봤습니다.
술선수범하는 공군, 늘 응원합니다.

from. 김성O

2024년 갑진년 새해 이벤트에 참여해
공군인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와 열렬한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우리 공군은 빈틈없는 영공방위태세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필승!







네 발의 전우, 군견

ROKAF Military Dog

공군 기지방어의 중요성은 원활한 항공작전 수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보다 효과적인 탐지·경보체계 구비를 위해 1954년 3월 수원기지에 주둔하던 美 공군 제58전폭대로부터 군견 10두를 인수해 경비견으로 운용한 것이 전군 최초이자 공군 군견 운영의 시초입니다.

이후 군견의 확보, 양성, 유지 및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군견훈련 교범과 군견관리운영 규정, 군견훈련사 자격증 획득 규정 등을 정립·발전시켰으며, 관세청, 경찰청, 중앙119구조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사육관리 및 훈련기법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군 군견은 기지 전력요소 보호 등 기지방어 작전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국가 주요행사에서 테러안전조치 임무에 투입돼 폭발물 검색 임무를 완수해왔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네 발의 전우, 공군 군견의 역사와 종류 및 임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ROKAF Military Dog History

- 1954. 03. 수원기지에서 美 공군 제58전폭대로부터 군견 10두를 인수해 경비견으로 전군 최초 군견 운영
- 1962. 07. 군견훈련 교범 발행
- 1966. 12. 공군 제2325부대 군견훈육대 창설
- 1967. 01. 군견관리운영 공군 규정 발행
- 1968. 04. 美 군견 150두 도입해 국내산 39두 포함 190여 두 운영
- 1968. 07. 군견훈육대 제10기지전대 직할부대로 예속 변경, 군견훈련 재정비·강화
- 1970~1972 육군·해군 군견 교관요원 양성
- 1970. 06. 모견 7두, 종견 1두 확보해 자견 번식계획 수립·운영
- 1970. 09. 공군교범 개정 발행, 10전비 분만실 준공
- 1971. 10전비에서 군견자격규정을 제정, 군견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 1972. 09. 군견 견번 제정-종견(FA), 모견(FC), 자견(FB)
- 1984. 01. 군견훈련사 자격증 획득 규정 마련
- 1984. 06. 46명의 군견훈련사(관리병) 배출
- 1988. 11. 교육사 헌병 교관실 및 10전비 유격훈련중대와 통합, 헌병교육대로 개편
- 1990.04. 군견 훈육대 이전(10전비→교육사)
- 1993. 05. 한국 애완동물 협회 견 훈련사 자격증 협정서 체결
- 2005. 04. 행정학교 교육대대 군견훈육중대로 개편
- 2012. 08. 정부기관 특수견 운용 MOU 체결
- 2015. 04. 군 최초 민간무상양도 시행
- 2017. 01. 공군 군견 전문 특기병 운영
- 2019. 10. 전천후 훈련장 및 신축 분만실 준공
- 2020. 01. 신규 견종(말리노이즈) 도입
- 2023. 06. 제1회 군견관리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 2023. 10. 전군 최초 마약탐지견 2두 양성

**공군 군견의
뛰어난 감각과 견종**

군견은 뛰어난 시각/후각/청각을 활용하여, 순찰, 탐지 등의 임무를 지원합니다. 개의 시각은 사람보다 탁월하며, 움직임에 민감합니다. 또한, 사람이 청취할 수 있는 거리보다 4~16배 정도 멀리 떨어진 곳의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사람의 청각 능력보다 40배 이상 감지능력이 높습니다. 낮은 음인 저주파는 성인의 경우 20~35kHz 정도 감지할 수 있는데 반해 개는 최대 100~120kHz까지 감지할 수 있어 사람보다 많은 소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후각의 경우 개는 사람보다 1만 배 이상의 후각 능력이 있습니다. 개는 냄새를 감지하는 후뇌가 발달하고, 입천장에는 사람에게겐 없는 야콥슨기관¹⁾이 있어 공기 중의 냄새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셰퍼드(Shepherd)

- 출신: 독일 ○도입: 1954년
- 체고: 수캐 60~65cm, 암캐 55~60cm
- 털빛: 검정, 적갈색 또는 회색

영화나 TV에서 자주 등장해 명견으로 활약해온 유명한 견종으로, 골격이 튼튼하고 영리한 개로 충실하고 위엄이 있다.



탱크(♂ 1세)

래브라도 리트리버(Labrador Retriever)

- 출신: 캐나다 ○도입: 2006년
- 체고: 수캐 57~62cm, 암캐 55~60cm
- 털빛: 검정, 노랑, 밝은 크림색, 초콜릿색

지뢰/마약 탐지, 사냥, 시각장애인 인도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영리하고 후각과 집중력이 뛰어나며, 지능이 높고 인내심이 커 적응력이 뛰어나다.



파랑(♀ 1세)

말리노이즈(Malinois)

- 출신: 벨기에 ○도입: 2020년
- 체고: 수캐 61~66cm, 암캐 56~61cm
- 털빛: 담황색, 적갈색

마르고 단단한 근육과 균형잡힌 사각형의 모양으로 변덕스러운 기후에도 잘 견딘다. 조화로운 비율과 고개를 치켜들고 다니는 걸음걸이는 우아하고 강인하다.



비오(♂ 2세)

※ 비오는 시범 견으로 활용 중이며, 탱크와 파랑은 군견 양성 중입니다.

1) 야콥슨기관(Jacobson's organ): 서비기관(鋤鼻器官)이라고도 하며, 양서류 이상의 척추동물의 후각기관으로 조류와 파충류에는 없고, 사람은 태아의 초기에만 흔적으로 나타난다.

군견 훈련과 임무

분만실에서 태어나 각별한 관리 아래 자란 군견들은 유견/자견/성견²⁾별 체계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먼저 유견은 낯선 환경에서 사람과 다른 개들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고무공이나 터그³⁾ 등의 보상물로 소유욕을 개발하며, 접촉으로 교감합니다. 다음으로 자견은 핸들러(handler, 조련사)와 함께 걷거나 공놀이하며 기초 체력을 키웁니다. 또한, 고무공과 퍼피터그 등의 보상물을 상자에 숨기고 찾도록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견은 보상물과 폭발물을 상자에 함께 넣어 폭발물을 인지시킵니다. 폭발물이 인지되면 보상물 없이 폭발물만 찾는 훈련을 합니다. 상자의 개수를 점차 늘리고, 상자뿐만 아니라 가방, 수납장 등 다양한 사물과 실제 공항, 물품 보관소, 창고, 야외 주차장 등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놓은 여러 훈련장에서 탐지훈련을 합니다.



폭발물탐지 훈련장(공항)에서 탐지하는 모습(왼쪽)과 물품 보관소에서 마약 탐지 시범을 보이는 모습(오른쪽)

순찰견은 12~18개월, 탐지견은 18~24개월 정도의 양성기간이 필요하며, 보통 생후 10~18개월에 첫 군견자격심사를 받습니다. 군견자격심사는 연 4~6회 시행하며, 군견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각 부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합니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 하면 추가 심사의 기회를 주고, 추가 심사에서 계속 통과하지 못하면 군견으로의 활용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무상분양 대상견으로 전환을 검토합니다.

각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견들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매년 ‘공군 군견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폭발물탐지(건물·차량), 명령·복종, 공격능력, 체력측정(장애물 달리기), 학술평가로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시행으로 군견관리 및 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23년 6월 '제17회 공군 군견경연대회'에서 명령·복종 실습 평가 장면(왼쪽)과 2023년 3월 시행한 교육사 부대개방행사에서의 군견훈련 시범 모습(오른쪽)

2) 유견/자견/성견: 여섯차례 예방접종이 완료된 생후 4개월 이상의 군견 등록된 견/생후 10개월 미만의 견/생후 10개월 이상의 견

3) 터그(Tug): 개가 장난감 등을 물고 있을 때 핸들러가 잡아당기면서 개와 놀아주는 것

STORY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이 겨울 우리에게
찾아 온 마음을 듣는

109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자살예방 상담번호가
'109' 하나의 번호로 통합됐습니다



<나만의백구만들기 ver.공군>

#109챌린지 #your109com #나만의백구만들기 #마음을듣는109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109'가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의 마음을 듣겠습니다.

국방행프롬 공군 신고전화
* 1303 7979 도 다양한 상담을 계속 지원합니다.

하사하자 하사하자

종영 기념

장형석 하사 인터뷰



2021년 10월 15일(금) 시작된 공군 유튜브 대표 콘텐츠 〈하사하자〉와 〈하사더하자〉 시리즈가 2024년 1월 24일(수) 업로드 영상을 마지막으로 종영했습니다. 임기제 부사관이 되는 과정과 공군의 다양한 보직과 특기를 체험하면서 유쾌하게 소개하며, 약 850일간 총 32부작, 누적 조회 수 약 391만 회¹⁾를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콘텐츠의 진행자이자 주인공, 공군의 연예인! 장형석 하사와의 인터뷰로 입대부터 기획, 종영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공군을 선택한 이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를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공군 콘텐츠제작병에 지원해 입대했습니다. 당시 약복을 입고 휴가 나온 학교 선배들에게 공군의 선진 병영문화와 자기계발 복지 여건 등을 듣고 공군병에 관심을 가졌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제작병에 지원해 최종 만점으로 합격했습니다.

군에 남은 이유와 삶의 목표

‘디자인’이 적성에도 잘 맞고 재미있었지만, 학년이 오를수록 직업에 대해 자아실현과 생계수단 사이에서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입대 후 ‘전체 조직의 일에 비해 작을 수 있지만, 국익에 이바지하고 국가 안보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시간이 지난 후 내게 남는 게 많고, 뿌듯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 임기제 부사관, 단기전환까지 신청하게 됐습니다. 열정

과 전문성으로 자기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리즈 제작 계기

신규콘텐츠 개발을 하던 중에 제가 임기제 부사관으로 지원했고, 이 과정을 V-log³⁾로 촬영해 올리면 재밌겠다는 의견이 나와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19로 전역 이후 복학이나 아르바이트 등이 어려워져 장병들의 임기제 부사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라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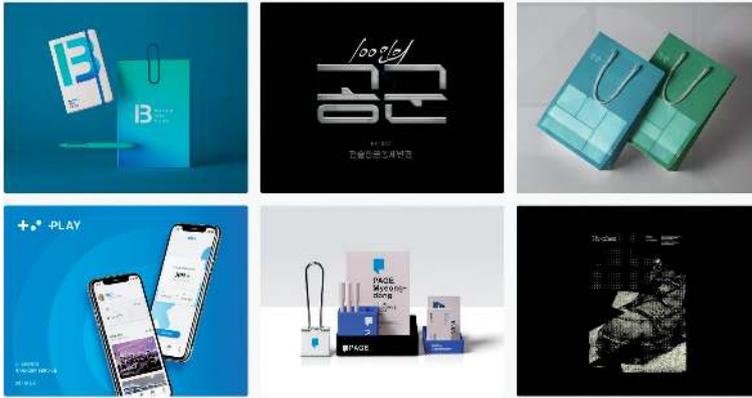
또 당시 부사관이 주인공으로 진행하던 정규 콘텐츠가 없었고, 제가 병 출신 부사관이어서 촬영하며 만난 장병들과 시청자들이 제가 병-부사관의 보직과 특기를 체험하는 모습을 친숙하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공군인들에겐 서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 공군인들에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공군 모병에도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1) 콘텐츠 본편 및 Shorts(숏츠) 누적 조회수(1월 25일 09시 기준)

2) V-log(브이로그):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군에서 해온 임무

많은 일을 해왔지만, 공군 전용서체 기획·개발, 하늘이프렌즈 초기 스케치 및 기획, '공군이 내놓은 디자인' BI³⁾ 디자인, 총장님 지휘지침·지휘기록 정선집 디자인을 대표로 꼽을 수 있습니다. 공군 기획상품 디자인 중 독자 분들이 많이 보셨을만한 것은 2023/2024 공군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100인의 공군>, <에어본> 등 영상 콘텐츠의 브랜드디자인에도 참여해 자막·로고·모션그래픽·섬네일 등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업무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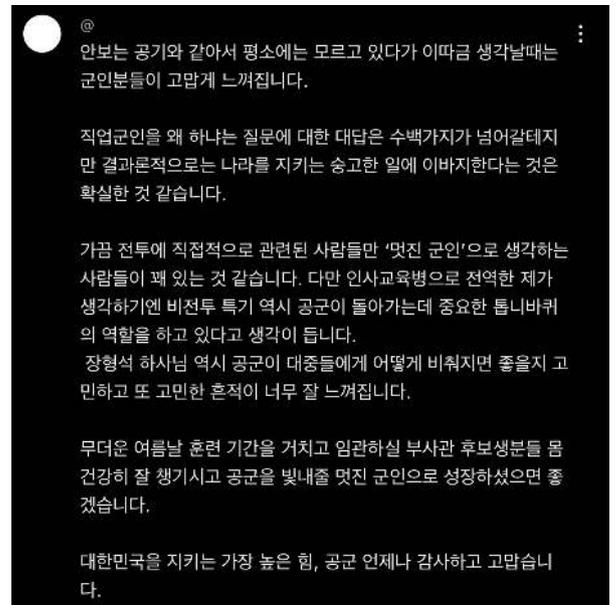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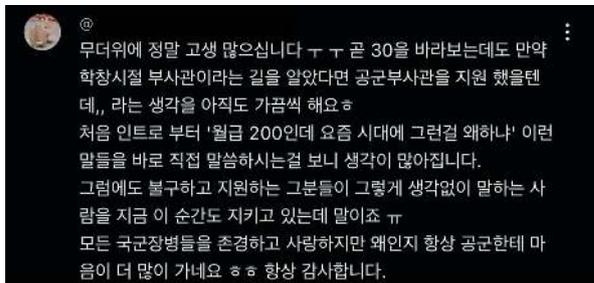
장형석 하사의 디자인 포트폴리오 일부



2023/2024 공군 다이어리 세트

기억에 남는 댓글

기억에 남는 댓글은 참 많습니다. 잘 보고 있다고, 재미있다고 달아주신 구독자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공군과 직업군인에 대한 응원의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의 모습을 잘 담아내지 못했을까 봐 늘 아쉬움이 많았는데, 설정·연출을 이해하고, 영상 의도를 잘 알아봐 주신 구독자분들의 응원 댓글이 있어서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형석 하사가 감동했던 <하사더하자>에 시청자의 작성 댓글들

3) BI(Brand Identity): 브랜드의 가치와 개성을 이미지로 통합하는 작업. 기업 경영전략의 하나로써 상품의 매력을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식시켜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연출에 대한 시청자 반응과 고민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 캐릭터(Character) 설정을 친숙하고 재미있게 잡았기 때문에 방송용 톤(tone, 어조·역양)으로, 실제 제 성격보다 조금 더 장난스럽고 우스꽝스럽게 연출했습니다. 또, 모자를 쓰면 화면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 실외에서도 탈모(脫帽)하고 촬영해야 했습니다. 물론 라인 안에서는 안전문제로 안 쓰는 것도 있었지만요.

공군에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군의 명예가 훼손될까 염려하셔서 비판 댓글을 달거나 민원을 넣곤 하셨습니다. 일반인인 저로서 악성 댓글과 원색적 비난이 상당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공군’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건 아닌지 고민에 밤새 잠을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촬영

<하사하자 Ep.6 생환훈련>입니다. 무더운 8월, 촬영 장비 고프로와 무선 마이크를 차고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채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산 한가운데에서 날카로운 벌레들이 온몸에 달라붙는데 가시뿔과 나뭇가지를 헤쳐가며 오디오가 비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카메라에 잡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촬영팀은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서 산을 올라야 하니 저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닭·토끼 등을 잡는 음식물 구득(求得)법 등 다양한 훈련을 함께 했는데, SNS에 탑재되는 영상이다 보니 다양한 시청자층을 고려해 잔인하거나 폭력적일 수 있는 영상들은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를 비롯한 공중군무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훈련을 받는지 낱낱이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사하자 Ep.6 생환훈련>에서 전투생환훈련 체험을 촬영 중인 장형석 하사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하사더하자 특별편: 부사후 246기 입영>입니다. 다른 편들보다 기획에 많은 공을 들인 콘텐츠였습니다. 당시 초급간부 처우 개선 문제가 대두돼 <하사더하자>에도 직업군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던 때였습니다. 직업군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길을 선택한 이들의 모습을 담아 분위

기를 전환하고 싶었습니다. 교육사령부 앞에서 만난 예비 후보생들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초급간부에 관한 내용을 매일 다루던 시기였음에도 본인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하사더하자 특별편: 부사후 246기 입영>에서 인터뷰하는 장형석 하사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

시청자 여러분! 3년이란 긴 시간 <하사하자>, <하사더하자>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군의 멋있는 모습을 저만 보기 아까워 여러분께 최대한 자세히 재미있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군 핵심가치 중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비록 영상에는 제가 주인공으로 출연

했지만,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시간에도 대한민국 영공 방위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수많은 공군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공기와 같이 평소에는 의식하기 어렵지만, 꼭 필요한 존재인 우리 공군인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필승! 🇰🇷



<하사더하자: 특별편>에서 구독자에게 경례하는 장형석 하사

하사하자

에필로그 외 추가 Q&A



촬영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나 아쉬웠던 점

‘군사경찰’을 촬영하고 싶었으나 교대근무를 하는 초병들의 컨디션에 영향을 줄까 봐, 또 업무 체험이 작전보안과 직결돼 촬영이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사더하자> 종영 이유

강릉기지로 전출가서 정훈 부사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입대 전으로 돌아간다면 장교/부사관/병/타군 병 중 어떤 것으로 입대할 건가요?

입대 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제작병을 알기 전에는 육군 ROTC 지원을 생각했던 터라 돌아간다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특별전형 장교로 지원해볼 것 같습니다.

입대 전과 달라진 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전역 후 진로

열린 결말로 남겨두겠습니다.(웃음)



<하사하자> 재생목록 QR코드



<하사더하자> 재생목록 QR코드

우리 심재민 생도 무사 임관을 축하해!!



1993년 12월 1일,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입대날. 누구나 그렇듯 가보지 않은 군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기분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싫다’, ‘두렵다’는 느낌이 더 강했었지. 기말고사도 못 보고 부리나케 입대하고, 공군사관학교 내 교재창이란 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사무병으로, 당번병으로 30개월을 잘 참고 기다려 꿈에 그리던 전역을 했다. 전역하면 군 생활했던 방향으로 오죽도 누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빠는 나를 행복한 군 생활이었기에 좋은 기억으로 추억하곤 했지. 결혼하고, 우리 이쁜 재민이·재훈이를 낳았고, 너희는 점점 자라났지. 네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뜻밖의 선언을 했어. 공군사관학교에 가겠다고.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내 아들 재민이가 군인의 길을 간다. 그것도 내가 군 생활했던 공군사관학교로. 어렵듯이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어. 일요일 저녁이면 청주 시내에서 크게 “필승!”을 외치며 버스에 올라타던 생도들. 사관학교에서 한 번씩 마주치면 나이는 비슷하지만, 나랑 다른 세계에 사는 동경의 사람들. 생도식당에서 먹어본 밥은 진짜 맛있었는데... 아. 내가 모시던 분도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시구나... 하는 기억들. 그리고 기도하고, 응원했다. 우리 재민이가 원하는 길을. 그리고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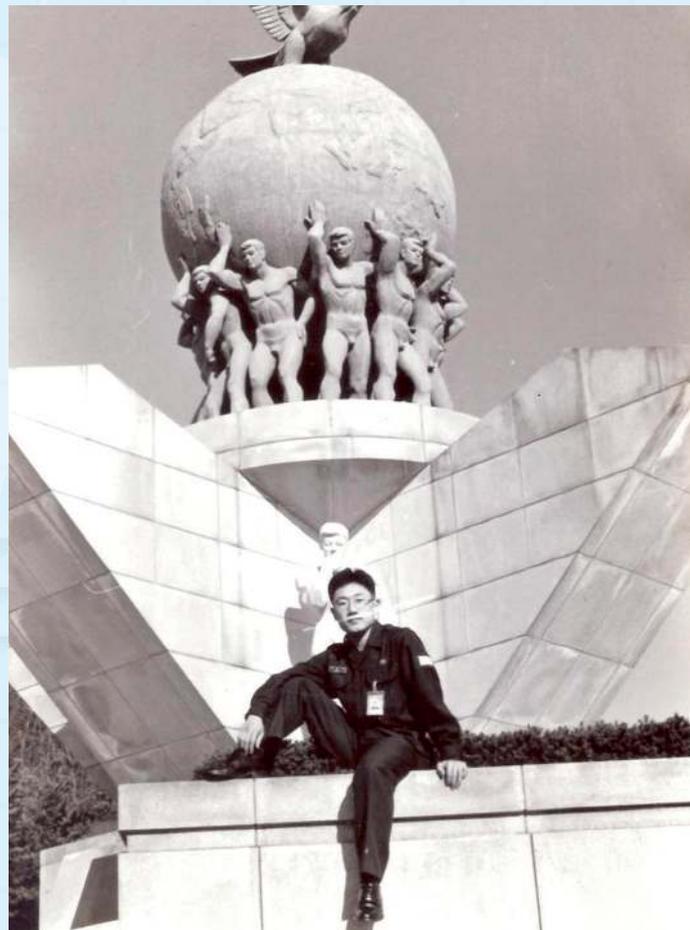
힘든 기초군사훈련을 잘 버텨줬고 4학년의 생도 생활도 무사히 보내 이제 한 달 뒤면 공군사관학교 모든 생도의 부모가 간절히 원해 온 무사 임관이네. 단 몇 줄의 글로 사관학교 생도들의 생활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4년의 생도의 길, 군인의 길을 바라보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거든. 몇 번의 위기도 있었을 거고, 혼자 애타게 기도한 적도 많았으리라 짐작만 한다.

대신 재민아. 기도하고 응원하는 부모의 마음도 알아줘. 모든 생도의 부모는 딱 한 가지만 바란다. 무사임관?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길을 가서 너희들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제일 바라는 거야. 언제부턴가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던 그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가 되어버렸다. 그 뜻을 너는 금방 알 듯싶네.

창가로 눈이 참 많이 내린다. 이제 너희들은 눈 치울 일이 없어지네. 누군가 내게 자녀가 사관학교를 가겠다고 말하면 나는 선뜻 가라는 말은 못 하겠어. 솔직히 생도들도 힘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생도 부모의 마음을 잘 아니까. 그렇지만 그 길이 힘든 만큼 보람과 명예가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더 자랑스러워.

4년 동안 참 고생 많았어. 4년이라는 세월을 잘 버텨줘서 진심으로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제 어깨 위 숫자는 1개로 줄어들지만, 그 무게는 더 무거울 수 있어. 대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졸업과 무사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 편지로 졸업·임관선물은 통치자~^^

심방섭님의 공군교재창 복무 시절 사진(1994~1995년)



사랑하는 아빠 병480기 심방섭



안녕하세요 첫째 아들입니다

이런 뜻밖의 경로로 편지를 쓴다는 게 좀 이상하면서도 신기하네요. 새삼 평생 부모님께 편지를 쓴 게 언젠지 생각도 안 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워지네요. 임관을 앞두고 인생을 돌아보면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고 다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껴요.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정봉이네 집이 화목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정봉이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이 화목한 이유와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아빠 덕분에 집안이 참 화목하고, 항상 분위기가 좋은 거 같다는거예요. 친구 같은 아빠, 다정한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요.

아빠가 써준 편지는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 졸업 및 임관식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생도 생활을 돌아보면 아빠가 항상 제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시고, 열심히 응원해주셨죠. 덕분에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힘들었을 때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항상 제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또 격려와 조언으로 저의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덕분에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었습

어린시절 심재민 생도와 아버지 심방섭님 사진(위)과 공군사관학교 2023년 이비이 날 행사사진(아래)



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웃음)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전 안 가본 국내 여행지가 없는 것 같았어요. 아들 둘을 데리고 떠나는 여행이 피곤하고 쉽지 않았을 텐데 저희를 위해 고생해주시고 저희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이 아빠와 함께했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함께한 여행, 대화, 웃음소리들이 언제나 제 마음 깊숙이 남아 있어요.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동안 말로 다 전하지 못한 것들을 이 편지에 담아 전하고 싶어요. 성인이 되고 아빠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나눴던 모든 이야기가 즐거웠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 중 한 분이신 아빠의 사랑에 감사하고, 아빠를 믿고, 의지해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시고, 절 위해 노력해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해요. 가끔은 못난 아들일 때도 있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서 아빠는 지구상의 모든 아빠 중 1등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잘한 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 것이고, 지난 20년 동안 가장 잘한 건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것이고, 평생 가장 잘한 건 아빠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또 아빠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제가 언제 어디에 있든 항상 마음속에 아빠가 있어요.

임관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첫째 아들, 재민이가 



그래픽으로 보는 공군

KT-1 웅비

전·후방 직렬 좌석의 2인 탑승용 기본 훈련기로, 순수 국내기술로 처음 만들어진 군용항공기다. 1995년 KTX-1 3호기 출고와 함께 웅비(雄飛)로 명명됐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공군에 인도되어 1960년대 해외 직도입 훈련기 T-37 세스나를 완전히 대체했다. 현재는 사천기지에서 조종사 양성을 위한 기본 훈련기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3년 7월 KT-1B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터키, 페루, 세네갈 4개국 공군에 수출했다. 





길이 10.26 m

폭(너비) 10.6 m

높이 3.67 m

항속거리 1,333 km

최대속도 648 km/h



주요국의 수송기

| 미군의 핵심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III |

C-17 개발을 위한 美 공군의 수송기 개발계획은 1970년 대 말부터 시작됐다. 당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이 구 소련의 확장 정책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느끼던 시대였다. 특히 냉전 상황에서 발생한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구소련의 최초 침공사례이



비행중인 C-17 글로브마스터 III

서 미국의 위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세계 어느 곳이든 신속히 전투부대를 전개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미국의 신속한 파병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수송기였다. 1980년 초, 카터 美 대통령은 미군의 새로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형 차기 수송기 개발계획(C-X)을 승인했다.

신형 차기 수송기는 주로 유럽에서의 분쟁 상황을 가정해 C-5 전략 수송기 정도의 탑재 능력과 항속 능력을 갖추면서도 전구(theater)* 내에서 운용 가능한 수송기 개발을 목표로 했다. 즉, C-5, C-141과 같은 기존 장거리 전략 수송기의 직접적인 후속기종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대형 수송기를 개발하고자 했다.

걸프전에서 전략 수송기는 美 본토 또는 유럽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주요기지까지의 수송을 담당했다. 그리고 주요기지부터 전방기지까지는 C-130 전술 수송기가 물자를 수송했다. 이처럼 수송기를 구분해 운용하는 것은 여러 모로 비효율적이다. 효율성을 위해 신형 차기 수송기는 美 본토에서 전방기지까지 직접 수송이 가능해야 했다.

* 전구(戰區, theater): 단일의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지상, 해상, 공중 및 우주 작전이 시행되는 지리적 영역. 필요 시 전구 내에 전쟁전구 또는 각각의 주요위협에 대한 작전전구를 설정할 수 있다.

장거리 대형수송기가 전방의 작은 활주로에서 운용할 수 있으려면 단거리 이·착륙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형 수송기 개발의 관건은 단거리 이착륙 능력의 성공 여부였다. C-17 개발에서 요구된 단거리 이착륙 성능은 900m급 활주로에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폭 15m의 유도도로와 소형 주기장에도 주기가 가능해야 하므로 수송기 크기가 제한됐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C-17은 미 육군의 주력전차인 M1을 충분히 수송할 수 있는 수준의 탑재 능력을 요구받았다.



C-5와 함께 전략 수송기로 사용된 C-141 스타리프터

개발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단거리 이착륙 성능은 기존에 시험 개발된 YC-15 중형 수송기에서 검증된 신기술을 적용해 해결할 수 있었다. YC-15는 1970년대 중반에 고성능 중형 단거리 이착륙 수송기 계획에 의해 개발됐지만 실용화되지 못한 기종이었다. YC-15에는 엔진 배기를 고양력장치에 직접 분출해 큰 양력을 얻을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됐다.

완성된 C-17의 성능은 C-5, C-141 전략 수송기와 C-130 전술 수송기의 장점만을 합친 것이었다. C-17은 약 78t의 화물 탑재가 가능해 C-5의 127t에는 못 미치지만, C-141의 40t보다 우수했다. 최대화물 탑재 시 항속거리는 약 4,300km로 C-5의 약 5,500km보다는 부족했지만 역시 C-141의 약 3,600km보다는 길었다.

전략 수송기로서 C-5에 준하는 성능을 보인 C-17은 전술 수송기 특유의 저공 낙하산 추출 체제(LAPES, Low Altitude Parachute Extraction System)와 비포장 활주로

운용능력을 갖췄다. 특히 지상에 착륙하지 않고 낙하산을 이용해 초저공에서 물자를 투하하는 것은 미군의 기존 수송기로는 C-130만 가능했었다. 이처럼 전략 수송기와 전술 수송기의 능력을 고루 갖춘 C-17은 총 239대가 생산됐고, 그중 美 공군에 224대가 배치되어 미군의 핵심 수송기로 운용되고 있다.

서방 최대 수송기, C-5 갤럭시

1961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C-5 갤럭시 수송기는 개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기였다. 이러한 타이틀은 러시아의 An-124가 1986년에 배치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됐으며, 여전히 C-5는 미군에서 가장 큰 수송기로 운용되고 있다.

최대 127t까지 물자 탑재가 가능한 C-5는 1969년 美 공군에 인도된 후 베트남전, 제4차 중동전, 걸프전 등 미군이 참전한 수많은 전쟁에서 美 공군 수송전력에서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오랜 운용 기간 때문에 C-5는 1970년대에 생산된 기본형 C-5A 외에 주익, 착륙장치, 항전장비 등이 개량된 C-5B가 1980년대에 美 공군에 배치되었다. 2006년부터는 기존의 TF-39 엔진을 신형 F138(CF6) 엔진으로 교체하는 성능개량이 이뤄졌다. 신형 엔진을 장착한 C-5는 기존 갤럭시와 비교해 이륙시간, 상승률, 탑재중량, 항속거리 등에서 큰 성능향상을 가져와 C-5M 슈퍼갤럭시로 명명되기도 했다.



KC-46으로부터 급유받는 신형 C-5M 수송기



미군 최대 수송기 C-5 갤럭시

총 131대가 생산돼 美 공군의 대표적인 전략 수송기로 활약했던 C-5는 주력 수송기의 위치를 C-17에게 넘겨줬지만, 성능 개량된 C-5M 52대를 2040년까지 운용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美 공군의 주요 수송기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C-135 계열 수송기

2009년 2월,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움직임에 미국의 신경은 곤두섰다. 이지스함을 비롯해 우주의 인공위성까지 미국의 모든 정찰력은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의 정찰 전력 중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고도의 비밀 장비를 탑재한 RC-135S ‘코브라 볼’ 항공기였다.

당시 일본 가테나 기지에 긴급히 전개된 RC-135S에는 특별히 제작된 적외선 센서 등 전자광학장비와 탄도미사일로부터 송출되는 전파 정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다. RC-135S는 이 장비들을 통해 북한 미사일의 발사지점에서부터 탄도, 탄착지점까지 면밀한 분석이 가능했다. C-135 계열 수송기들은 RC-135S와 같이 비록 소수가 제작됐지만, 각종 특수 임무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미군의 작전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C-135 계열 항공기는 외형이 여객기와 흡사하다. 이는 C-135 계열이 보잉사의 걸작 여객기 보잉 707기종을 군용으로 개조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초에 개발된 보잉 707은 DC-8 더글러스, DH-106 코메트 등과 함께 제트 여

객기 시대를 개막한 역사적인 기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엄밀히 구분하면 보잉 707의 군용기형은 C-18 또는 C-137 기종이다. 美 공군은 중고 또는 신규 제작된 민간의 보잉 707 기체를 개조해 C-18, C-137로 명명한 후 VIP 수송 및 훈련, 각종 관측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C-135 계열 수송기는 보잉 707 여객기 개발에 모태가 된 보잉 367-80 여객기를 군용으로 개조한 기종이다. 1954년에 처음 비행한 보잉 367-80은 美 공군의 전략공군사령부 공중급유기로 채택돼 KC-135라는 이름으로 732대가 생산됐다. 앞서 언급된 보잉 707과 367-80, C-18, C-137, KC-135는 모두 기본적인 구조가 같다. 다만 KC-135는 공중급유를 위해 후방 동체 아래에 플라잉 붐 방식의 공중급유 장치가 추가된 것이 차이점이다.

KC-135 공중급유기는 보잉 707을 기본으로 한 군용기 중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배치된 지 이미 60여 년이 지났지만, KC-135는 KC-10, KC-46 기종과 함께 美 공군의 주력 공중급유기로 2030년까지 활약하게 될 것이다.



C-135계열 수송기의 원형인 보잉 367-80 여객기



F-15C에 급유중인 KC-135R 스트라토탱커 급유기



RC-135 리벳 조인트 정찰기

C-135 계열은 정찰기인 RC-135와 전자전기 EC-135 기종으로도 유명하다. RC-135 정찰기는 원격측정 정보를 활용해 탄도미사일 발사정보를 수집하는 RC-135S/X와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RC-135U, 신호 및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RC-135V/W 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기종은 복잡한 제식 명칭보다 애칭으로 불릴 때도 많은데, RC-135S/X는 ‘코브라 볼/아이’, RC-135U는 ‘캠벳 센트’, RC-135V/W는 ‘리벳 조인트’로 불린다.

RC-135와 같이 미사일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는 않지만, 기상 정찰기인 WC-135 ‘컨스턴트 피닉스’도 중요한 정찰 수단이다. WC-135는 대기 성분을 분석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갖추고 있어 북한의 핵실험 사태 시 한반도 주변 대기를 긴급히 분석하기도 했다.

그밖에 C-135 계열 항공기로는 EC-135 기종이 있다. EC-135는 각종 계측 장비를 탑재한 EC-135B/E/G/N 계열과 각종 통신장비를 완비해 지휘기로 사용하는 EC-135C/H/J/K/P/Y 계열로 크게 구분된다.

민간 여객기로 개발된 보잉 707은 이미 1980년대에 자취를 감췄지만, 군용 목적의 C-135 계열 기종은 특수 임무기로 가치를 더욱 인정을 받아 21C에도 오랜 기간 운용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수송기 An-225와 An-124

현존 세계 최대 수송기는 러시아의 An-124 루슬란이다. An-124의 탑재 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은 각각 150t, 402t으

로 C-5의 127t, 381t보다 더 무겁다. 1971년에 개발이 시작된 An-124는 1986년부터 구소련 공군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An-124는 총 50여 대가 생산됐는데, 러시아 공군뿐만 아니라 민간 화물기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Su-27과 비행 중인 러시아 An-124 루슬란 수송기

러시아는 초대형 화물인 우주왕복선을 수송하기 위해 1984년부터 An-124를 확대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An-124의 동체와 날개를 연장했고, 엔진 수 또한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렸다. 이러한 재설계를 통해 1988년에 탄생한 항공기가 An-225 트리야다. 이미 세계 최대였던 An-124를 확대한 An-225는 최대이륙중량 640t에 무려 254t의 화물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항공기였다.

An-225는 최초 2대가 주문됐지만, 실제로는 1대만 완성됐으며, 민간 상업 운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초대형 화물기로 활용됐다. 하지만 2022년 2월 27일, 우크라이나



세계 최대 수송기 An-225 트리야 수송기

전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유일하게 1대 제작됐던 An-225가 파괴됐다. 우크라이나는 파괴된 An-225의 복원 의지를 갖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전과 경제성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향후 An-225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브라질 C-390 밀레니엄 수송기

C-390은 브라질이 개발한 수송기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브라질에서 군용 수송기를 제작했다는 사실은 생소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 밀레니엄 수송기

할 수 있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브라질은 영토가 넓고 밀림지대가 많은 지리적 환경여건으로 인해 이미 1940년대부터 항공산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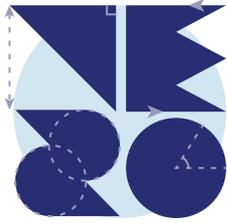
1969년에 설립된 브라질 국영 엠브라에르사는 EMB110과 30석급 커뮤터기인 EMB120 브라질리아 개발 이후 50석급 ERJ145, 70석급 E170 시리즈, 100석급 E190 시리즈까지 성공적으로 수출하면서 커뮤터기, 리저널 제트기 시장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발돋움했다. C-390은 바로 이 E-시리즈 제트 여객기에 적용된 기술을 토대로 군용 수송기 요구도에 맞게 브라질이 설계한 기종이다.

널리 알려진 C-130J 수송기와 C-390을 비교해보자면, C-390의 탑재 중량과 최대이륙중량은 각각 26t, 87t으로, 각각 19t, 70t인 C-130J보다 더 크고, 많은 물자 탑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는 C-390의 순항속도는 약 870km/h로, 터보프롭 엔진을 사용하는 C-130J의 순항속도 약 644km/h보다 더 빠르다. 이러한 성능의 C-390은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의 기종으로도 결정됐기 때문에 향후 우리 공군에서 주요 수송기로 운용될 예정이다. 



임상민 박사

한국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 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공 테 리 어

독립! 자취방은 어떻게 꾸며야 할까?

좁은 자취방이더라도 어떻게 꾸미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라이프스타일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꾸며놓고 정돈된 공간은 환경에 맞춰 나 자신을 한 번 더 챙기게 되고,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일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취를 계획하는 많은 공군 장병과 월간 『공군』 구독자들을 위해 1인 가구, 원룸 공간을 꾸미는 꿀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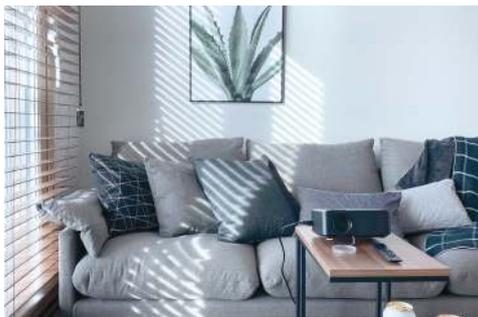
원룸은 무엇부터 꾸며야 할까?

방이 가진 기능 중 가장 우선하는 것은 휴식, 잠이죠. 침대 배치를 먼저 고려해 보세요. 침대는 꼭 방구석에 붙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침대를 활용해 공간을 나누고 선반이나 책상을 뒤도 좋아요. 방 모퉁이에 배치하더라도 침대 헤드보드(headboard) 방향만 바꾸면 세 면을 감싸줘 훨씬 아늑한 침실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를 위해 꼭 필요한 '이것'

아무래도 자취할 땐 가성비를 생각하다 보니 저렴한 개방형 선반장을 자취 가구로 주로 사용하는데, 문이나 서랍이 있는 수납장을 더 추천해 드려요. 무심하게 수납해도 문만 닫으면 공간이 깔끔해 보인답니다. 특히 칸이 많은 와이드 서랍장과 같은 제품은 용도별로 구분해서 수납하기도 좋고 콘솔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커튼? 블라인드? 채광 조절하기

자취방에 별이 잘 드는 것도 큰 행운이죠. 공간이 더 단정하고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나무 블라인드를 추천해 드려요. 시크(Chick)한 분위기가 좋다면 알루미늄 블라인드도 좋아요. 공간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꾸미고 싶다면 커튼을 추천하는데, 무겁고 답답한 느낌의 암막 커튼보다는 일반 커튼과 시폰 커튼을 겹쳐 사용하면 아늑한 분위기와 함께 이중 차양 효과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꿀정보

전셋집/월셋집에 커튼을 달아도 되나요?

창가에 움푹 들어간 공간이 커튼 박스인데,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기존에 커튼이 달려있었거나 이미 나사 자국이 있다면 집주인분도 커튼을 달기 위한 타공은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도 꼭 사전에 집주인분께 양해를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라이프스타일(life style):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생활/행동/사고양식 등 생활의 모든 측면의 문화적·심리적 차이를 나타낸 말



미국 II. 뉴욕

‘세계의 중심’이라는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월스트리트 (Wall street).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경, 테러범들이 납치한 2대의 항공기 충돌로 월스트리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다. 3,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인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그리고 1달 후인 10월 초, 주모자 빈 라덴과 탈레반을 소탕하고자 미국은 아프간전쟁을 선포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다. 10년 후에는 바로 그 자리에 그날의 비극을 증언하는 ‘9·11테러 기념관’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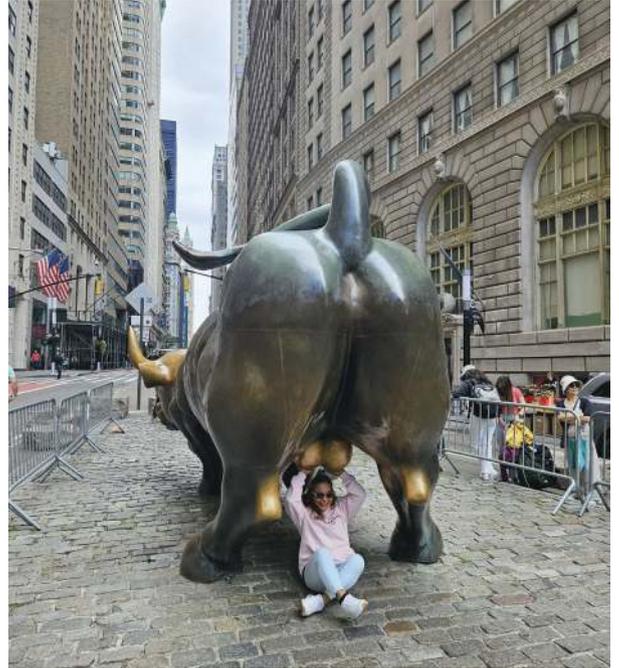
또한, 멀지 않은 허드슨강의 관광명소인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Intrepid Sea, Air & Space Museum)에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실체를 보고자 매일 수많은 관람객이 몰려들고 있었다.



9.11테러 희생소방관 추모 시설(왼쪽)과 9.11테러 기념관 전시실 전경(오른쪽)

돈벼락 속설을 가진 '돌진하는 황소상'

뉴욕 월스트리트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다. 연방준비은행, 뉴욕 증권거래소 등 파이낸셜 빌딩들이 줄지어 모여 있다. 콧김을 내뿜으며 달려나가는 '돌진하는 황소상(Charging bull)'도 바로 그 거리에 있다. 1987년 뉴욕은 '암흑의 월요일(Black Monday)' 주식폭락으로 충격에 빠졌다. 그 이후 금융계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의미로 이 황소상이 세워졌다. 특히 '황소의 커다란 고환을 만지면 돈벼락을 맞는다!'라는 뜬금없는 속설로 관광객들이 줄지어 기념촬영 순서를 기다린다.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딱 한 번만 만지고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더 많은 돈벼락을 상상하며 두세 번 그곳을 쓰다듬으면 당장 뒷사람의 눈총을 받는다. 시도 때도 없이 돈에 눈이 먼 인간들이 만졌던 황소의 그곳은 도금이 벗겨져 하얀색으로 변해 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돌진하는 황소상(Charging bull)'

전쟁 미참전자의 마음의 빛, 항공모함 박물관으로 탄생

뉴욕 허드슨강에는 1943년에 건조해 1974년에 퇴역한 27,500t급의 인터레피드 해양항공우주 박물관(Intrepid Sea, Air&Space Museum)이 있다. 역전의 이 항공모함은 태평양전쟁, 베트남전쟁에서 숭한 신화를 남겼다. 이 박물관은 정부가 아닌 재커리 피셔(Zachary Fisher)가 개인재산을 투자해 건립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하지 못해 항상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빛을 지고 있었다. 1979년 부동산 사업으로 대부호가 된 그는 개인재산을 털어 이 박물관을 만들었다. 박물관의 활주로에는 1950년대 이후의 美 공·해군 주력 항공기들인 F-86 세이버, F-5 프리덤 파이터, F-4 팬텀, F-14 톱캣, F-18 호넷이 빼곡히 모여 있다. 아울러 적성국의 구형 미그(MiG) 전투기들도 기종별로 독특한 색깔한 채로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다.



뉴욕 허드슨강에 있는 인터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왼쪽) 전경과 인터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 전경(오른쪽)

태평양전쟁 해군 조종사의 애뜻한 사연

비행갑판 하단부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항공기 전시와 태평양전쟁·베트남전의 역사교육장으로 개조했다. 특히 이 항모에서 출격해 혁혁한 전공을 세운 조종사들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전쟁 역사를 전해준다. 바닷속에 앙상한 항공기 프로펠러와 동체잔해의 전시물에 얽힌 애뜻한 사연이다.

“1945년 초 미주리(Missouri)주 출신의 해군 조종사 조지(George) 중위는 신혼의 단꿈이 깨기도 전에 인터레피더 항공모함에 배치됐다. 1945년 3월 18일, 조지는 호그(Hog·수탉지)라는 애칭의 F4U 콜세어(Corsair)기와 함께 출격했다. 12,571대가 생산된 이 전투기는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 당시 美 해군의 주력 기종이다. 조지의 콜세어 편대는 일본 규슈 남부의 사이키(Saiki) 비행장 폭격 임무를 가진 B-29 폭격기를 엄호했다. 목표 상공에서 적기와와의 치열한 공중전 중 조지의 애기(愛機)는 피격당해 흰 연기를 뿜으며 해변으로 날아갔다. 최종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비행본부는 그를 실종 처리했다. 전쟁이 끝난 후, 고향의 어린 신부는 돌아오지 않은 신랑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1995년 일본 어부가 우연히 사이키 근해에서 F4U 전투기 잔해를 발견했다. 역사학자·과학자·목격자의 검증으로 조지 중위의 전투기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해군 조종사의 애국심이 주목받아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조지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지만, 전쟁영웅의 항공기 잔해만은 다시 돌아와 역사전시실에서 당시의 전쟁을 증언하고 있었다.



F4U 콜세어 전투기 모형



1995년 인양된 美 해군 조지 중위의 콜세어 전투기 잔해

국방 인재의 산실 웨스트포인트(West Point)

뉴욕 근교의 美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는 많은 여행객이 찾는 관광명소다. 뉴욕 중앙역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의 시골 역 개리슨(Garrison)에 도착해 택시로 20여 분 가면 허드슨(Hudson)강변에 美 육사가 있다. 1802년 창설된 美 육사는 매년 미국의 대학평가에서 항상 10위권 안쪽을 유지한다. 매일 3~4차례 인솔자와 함께 영내 관람이 가능하다. 특히 고색창연(古色蒼然)*한 교회 건물 안에는 비워둔 의자 한 줄 가운데 촛불 1개가 타고르고 있었다. 한국전쟁·베트남전에서 실종된 미군들이 언젠가 귀환하면 같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남겨둔 빈 자리란다. 사관생도들의 정신전력교육은 이 촛불의 의미로 끝날 것 같았다. 주말을 영내에서 보내는 웨슬리(Wesley) 생도는 본가가 워낙 멀어 동·하계 휴가와 추수감사절에만 갈 수 있단다. 영내 생활이 답답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해양스포츠·도서관·동아리 활동으로 오히려 주말을 알차게 보낸단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유지하는 원천은 이처럼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웨스트포인트로 몰려들기 때문인 것 같았다. 



美 육군사관학교 본관과 연병장 전경



美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교회 건물의 실종 장병 귀환 기원 촛불(왼쪽)과 美 육사 졸업생들의 자축 행사 모습(오른쪽)

* 고색창연(古色蒼然): 오래되어 예스러운 풍치나 모습이 그윽함



신종태 교수

2010년 국내 최초로 충남대에서 군사학박사를 취득했다. 충남대·국군간호사·조선대에서 전쟁사를 강의하면서, 세계 60여 개국의 군사박물관과 전쟁유적지를 답사했다. 현재도 계속 답사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전쟁유적지를 찾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즉각, 강력히, 끝까지!’ 통합상황 조치 훈련

공군은 2024년 1월 적의 포격 도발과 항공기 영공침범 등 복합도발 상황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 상황 조치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통합상황 조치 훈련’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F-15K, F-16, RF-16 등 항공 전력 20여 대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공군은 적 도발에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는 대비 태세를 다시금 확립했습니다.





한국전쟁 전사자 합동 봉안식 참석 및 국립 대전현충원 신년 참배

이영수 참모총장은 12월 29일(금),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엄수된 한국전쟁 전사자 합동 봉안식에 참석했다. 참모총장은 2023년 발굴된 국군 전사자를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참모총장은 1월 2일(화), 신년을 맞아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헌화와 참배를 했다. 참모총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영공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다.



대비태세 현장지도



이영수 참모총장은 1월 2~3주, 강원 지역에 있는 방공관제부대와 강릉기지를 방문해 임무현장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참모총장은 “최근 북한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표현하면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다.”라며 “우리도 명확한 대적관과 군인정신을 확립하여 어떤 상황에도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ight Tonight’ 태세를 견지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



이영수 참모총장은 1월 19일(금),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학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항공우주인들과 대한민국 항공우주 분야 발전 방향과 전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군사관학교

천문대 별별 콘서트

공군사관학교는 1월 9일(화), 부대 인근 초중등학생들과 군 가족을 대상으로 천문우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천문대 별별 콘서트'를 개최했다. 군 천문우주 분야 교육·연구와 민간 교육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사관학교 천문대는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별별 콘서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사령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공군교육사령부는 1월 11일(목), 산청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교육사령부는 앞서 진행한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1,100장의 연탄을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제3훈련비행단

건물화재 진압훈련

제3훈련비행단은 1월 18일(목), 소방요원들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능력 향상을 위한 건물화재 진압 훈련을 했다. 3훈비 소방요원들은 화재 시 대응절차 및 임무를 철저히 숙달하며,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겨울철 화재에 철저히 대비했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51비행대대 36년 무사고 비행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51비행대대는 1월 10일(수), 36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제251대대는 1988년 창설 이후 49,424,406km를 비행하며 연합훈련, 물자·병력 공수, 인도주의적 국제 평화 활동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번 기록은 제251비행대대가 창설 이후 단 한 차례의 사고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제18전투비행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비 대테러 훈련

제18전투비행단은 1월 11일(목), 1월 19일(금)부터 2월 1일(목)까지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대테러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18전비 초동조치팀과 작전 요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제3미사일방어여단

장병 V-리그 관람

제3미사일방어여단 장병들은 1월 10일(수),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GS 칼텍스 서울 KIXX'의 V-리그 경기를 관람했다. 장병들은 열띤 응원을 펼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팀워크를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식탁 위의 군대 이야기

후추: 황금의 가치



이인이 칼럼니스트

‘외식관광뉴스’ 대표이자 ‘한국외식관광진흥원’ 이사로 활동 중이다. 다양한 식문화와 여행 명소를 경험하며 얻은 지식을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 『테마가 있는 여행 55선』(공저)를 출간했다.

후추는 알싸한 향과 매운맛을 내는 대표 향신료다. 향신료는 식물의 꽃·열매·씨앗·뿌리·나무껍질 등에서 얻은 음식의 향과 맛을 돋우기 위해 넣는 식자재다. 고기의 누린내와 생선의 비린 맛을 없애고, 살균 효과가 있어 가공식품에도 널리 쓰인다. 후추는 크게 3가지 색이 있다. 덩굴 식물인 후추나무에서 후추 열매를 따서 사나흘 말리면 검은 후추가 된다. 흰 후추는 완전히 익은 붉은 열매의 껍질을 벗긴 뒤에 말린 것이다. 껍질에 매운 성분이 있어 흰 후추는 검은 후추보다 덜 맵고, 화이트소스나 생선, 닭고기 요리에 쓰인다. 녹색 후추는 빨강계 익기 전에 따서 소금물에 절여 얻게 된다. 매운맛은 덜하지만 신선한 향을 지니고 있다.

후추를 지금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로마 시대에는 ‘후추 1g’을 ‘황금 1g’의 가치로 여길 만큼 비쌌다. 지중해에서 1545년에 침몰한 영국 해군의 함선, 메리 로즈 호를 인양하자 익사한 선원의 주머니에서 후추가 한 주먹씩 나왔다고 한다. 위급한 순간에 배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것이 후추였던 것이다. 500년 전 유럽 사람들은 후추를 구하기 위해서 망망대해로 떠나는 위험을 감수했고, 후추가 나는 곳을 차지하고자 전쟁을 벌여 식민지로 삼았다.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나의 제국에는 없는 게 없지만, 후추만이 없다.”라고 말했다. 로마의 후추는 인도 서남부의 말라바르 해안에서 수입해 온 것이었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로마제국의 화폐가 종종 발굴된다고 한다. 중국의 비단이 전해진 교역로를 실크로드(silk road·비단길)라고 하듯이 향신료 교역로를 스파이스 루트(spice route·향신료길)라고 부른다.

11C에서 13C까지 200년간 유럽인들은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며 십자군 전쟁을 벌였다. 전쟁 기간 인도와 아시아의 향신료를 접했고, 후추는 다시 인기를 끌게 된다. 이 당시에도 후추는 비싸서 왕이나 귀족만 먹을 수 있었는데, 말린 대구나 청어에 후추를 듬뿍 뿌려 먹으며 그 향을 즐겼다고 한다.

후추가 비쌌던 이유는 해로와 육로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많은 상인의 손을 거칠 때마다 가격이 2배씩 뛰었기 때문이다.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면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전성기를 누렸다. 이 무렵부터 후추는 엄청난 사치품으로 자리 잡았다. 유럽에서 후추가 가장 많이 사용된 12C부터 16C까지가 베네치아의 전성기와 일치한다.

유럽인들은 중간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값비싼 향신료를 구해 얻을 막대한 이익을 꿈꾸며 바다로 나섰다.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 가마가 아프리카를 빙 돌아 인도에 가서 후추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베네치아의 후추 독점은 끝났다. 후추는 그에게 귀족 지위와 엄청난 재산을 안겨줬다. 신항로 개척 시대의 선두 주자였던 포르투갈은 후추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여 인도 고아지역에 식민도시를 세웠고, 이는 유럽이 아시아에 세운 첫 식민지가 됐다.

동시대의 해양 강국인 네덜란드와 영국은 동인도회사를 세웠다. 말이 '회사'였을 뿐 식민지 경영을 위한 군대를 움직였고, 다른 나라에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와도 같은 존재였다. 두 나라는 향신료 무역을 둘러싸고 세계 곳곳에서 군사 충돌을 반복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전쟁 끝에 향신료 생산 지역의 지배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1667년에 네덜란드의 식민지 요새인 뉴암스테르담을 영국에 넘겨줬다. 영국은 이곳의 이름을 뉴욕(New York)으로 바꿨다. 훗날 영국의 왕이 되는 요크공작을 기리는 의미였다. 작은 섬 맨해튼의 뉴욕은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

이후 식민지에서 유럽으로 너무 많은 양의 후추가 수입되자 후추값은 뚝뚝 떨어졌다. '후추처럼'이란 말은 '값비싼'이란 뜻이었으나, 이후에 '후추 집세'라는 말은 '값싼 집세'를 의미하게 됐다. 17C 이후에 후추 대신 커피·차·설탕 등이 인기를 끌며, 후추의 인기가 떨어지게 됐다.

'후추'가 세계를 움직인 이야기의 마지막은 후추를 먹는 팁이다. 후추는 요리의 풍미를 높여주며, 영양학적으로는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매운맛 성분이 지방 세포 형성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높은 열로 조리 중인 음식에 넣으면 고유의 향이 날아가고,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이 증가한다. 후추의 맛과 향을 즐기려면 가루 형태의 후추가 아닌, 통후추를 갈아서 조리의 마지막에 첨가하는 것을 추천한다. 



검정색, 흰색, 빨간색 3색의 후추 사진 출처: pixabay

동서양 그랜드투어

대충 살자. 자신의 곡을 그대로 베꼈던 모차르트처럼! 「플루트 협주곡 2번」



KBS교향악단 YouTube QR코드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2번(김유빈)



송사비 뮤직테이너·작가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했으며, 클래식 음악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12만 유튜버가 됐다. 『송사비의 클래식 음악야화』, 『클래식 사용 설명서』를 출간 후 베스트셀러 작가로 급부상했다. EBS <클래스@ 2021: 클래식 뮤직드라마>, 팟빵 <당신을 여는 클래식, 송사비입니다>, FLO <일상의 클래식> 등을 제작·진행하며, 일반인과 클래식 사이를 이어주는 주선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는 갓생(God生)* 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를 SNS에 전시하고, 자연스럽게 남들과 비교하는(혹은 비교되는) 것이 익숙해서일까? 저마다 인생의 속도가 다르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짝 뒤처지거나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할 때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곤 한다. 그리고 이내 울적해진다.

‘나는 왜 남들만큼 부지런하지 못한 걸까?’, ‘나는 왜 남들처럼 잘 풀리지 않을까?’

어쩌면 이것은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우울감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생기는 자기비판 인지도 모른다.

고전 시대를 이끌던 작곡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닌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역시 남들이 봤을 때는 천재로 태어나, 3살 때부터 클라비어(피아노의 전신)를 연주하고, 5살에 작곡을 했으며, 모든 곡을 명곡으로 만든 ‘갓생러(갓생을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럼프가 종종 있었으니, 바로 ‘작곡하기 싫어!’ 병이 도지는 것이다.

모차르트의 가장 유명한 ‘작곡 싫어 병’ 일화는 목관악기인 플루트(flute) 때문에 생겨났다. 18C 초기만 해도 플루트는 지금처럼 금속으로 만들어진 악기가 아니라, 나무로 된 악기였다. 지금의 플루트 키(Key, 음을 막는 버튼)는 악기의 구멍을 완전히 꼭 덮는 구조인데, 그 당시의 플루트는 그냥 나무에 구멍이 뚫려있는 정도로, 별도의 장치 없이 손가락으로

* 갓생(God生): 신(神)을 뜻하는 God과 ‘인생’의 삶(生)이 합쳐진 신조어. 남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지칭한다.

구멍을 일일이 틀어막으며 음정을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모차르트가 살던 시대의 플루트는 지금처럼 예쁜 음색을 가진 것이 아니라, 투박하고 뭉툭한 소리가 났으며 음정도 애매했다.

오케스트라 곡에서는 모든 악기가 같은 음으로 조율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악기처럼 뭉쳐서 들려야 한다. 하지만 그 시절 플루트가 혼자 미묘하게 틀어진 음정을 연주하고 있다면? 작곡가로서는 괜히 그 악기가 싫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모차르트는 ‘드 장’이라는 네덜란드의 한 귀족에게 플루트 협주곡 3곡을 의뢰받는다. 모차르트는 작곡 과정에서부터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협주곡 1번을 오만 짜증을 내면서 겨우 완성하고 2번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악상을 떠올리고, 음표를 그리려고 해도 플루트의 음색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다. 결국, 모차르트는 한 마디도 새로 쓰지 못한 채 자신이 예전에 써둔 오보에 협주곡을 조성만 살짝 바꿔 마치 새 곡인 것처럼 돌려막기를 하기에 이른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3번은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곡을 쓰다가 그만뒀버린 것이다. 즉, 협주곡 3곡 중 1곡만 겨우 완성한 셈이다.

심지어 모차르트는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 아버지인 레오폴트 모차르트에게 투정 어린 편지를 쓴 적도 있다.

“아버지 이 악기의 소리는 도저히 참기가 힘듭니다. 싫어하는 악기를 위해 작곡하는 일은 너무 괴로워요.”

대가(大家)라고 불리는 모차르트에게도 이런 흑역사가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다음 일이다. 곡을 의뢰했던 드 장은 이내 모차르트가 플루트 협주곡 2번을 그대로 베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오보에에서 플루트로 바뀐 채 연주되는 그 곡이 너무나 아름다워 의뢰한 곡들을 미처 다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그대로 값을 치르고 모차르트의 작품활동을 계속해서 응원한다.

모차르트는 플루트 협주곡 2곡과 더불어, 플루트 4중주까지 완성하면서 플루트 수난 시대(?)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정작 본인은 과정 내내 고통받았지만 아이러니(Irony·역설)하게도 이 곡들로 인해 ‘플루트의 음색이 꾀꼬리 같다’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모든 곡이 아름답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플루트 곡들은 플루티스트들의 바이블(Bible, 성서)처럼 모든 연주자가 한 번씩은 꼭 거쳐 가는 레퍼토리(repertory)가 됐다.

지금 당장은 남들만큼 속도가 나지 않더라도 누구나 나만의 아름다운 속도가 있기 마련이다. ‘남들은 화려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싶을 때는 자신의 곡을 베껴서라도 마감을 지키려고 했던 모차르트처럼 대충 뭐라도 해보자. 지금 당장은 답답해 보이는 하루일지라도, 지나고 나면 무언가를 바꿀 커다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2번이 유독 아름답게 들리는 것처럼 말이다. 



출처: 나무위키

모차르트

한 달, 한 권

『흑뢰성』 과거의 시간과 공정한 미스터리의 절묘한 균형



윤영천 작가

미스터리 애호가이자 독자/기획자/편집자/저자. 1999년부터 미스터리(mystery·추리) 소설을 소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하우미스터리(howmystery.com)를 만들어 20년 넘게 운영 중이다. ‘셜록 홈즈 걸작선’, ‘브라운 신부 시리즈’, ‘레이먼드 찬들러 전집’ ‘긴다이치 코스케 시리즈’, ‘엘러리 퀸 컬렉션’을 비롯해 수십 종의 미스터리를 기획·편집했다. 저서로는 『탐정사전』, 『미스터리 가이드북』 등이 있다.

‘미스터리(mystery·추리) 소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기괴한 사건, 불가능한 수수께끼, 논리적인 명탐정, 놀라운 반전 등... 이런 요소들은 모여서 하나의 경이감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경이감은 또 다른 작품들을 자꾸 찾아 읽게 만들죠.

그런데 경이감은 과학 기술과 조금 떨어져 존재해요. 추리소설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탐정은 빛나는 이성 그 자체였지만, 지금은 탐정 혼자서 모든 걸 장악하기 어려운 사회가 됐습니다. 140종의 담뱃재를 구분하고, 42가지 자전거 타이어 종류를 전부 알고 있는 셜록 홈스를 현재로 데려오면 어떨까요? 스마트폰과 CCTV가 있는 이곳에서는 그저 잘 난 척하는 아저씨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추리소설이 처음 등장했던 빅토리아 시대에 비하면 과학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사회는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탐정이 등장하는 경이로운 추리소설을 쓰고, 즐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여전히 경이감을 만들어 내려고 애쓰는 작가들은 있습니다. 이런 작가들은 세 가지 기법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클로즈드 서클(closed circle)’, 닫힌 공간에 범죄자와 피해자, 목격자를 함께 가두는 기법입니다. 두 번째는 ‘특수 설정’, 판타지나 SF(Science fiction, 공상과학) 장르와 같이 다른 장르의 세계관을 가져오는 기법이죠. 현실성은 부족하지만, 그만큼 미스터리 장르 특유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과거로 되돌아가는 역사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서론이 아주 길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법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 글에서는 최근 가장 화제였던 일본 역사 미스터리 한 편을 소개해 드리죠. 2021년 일본에서, 이듬해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요네자와 호노부의 『흑뢰성』이란 작품입니다.

『흑뢰성』은 제12회 야마다 후타로상을 시작으로, 일본 미스터리 4대 랭킹지인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본격 미스터리 베스트10>, <주간문춘 미스터리 베스트10>, <미스터리가 읽고 싶다!>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으며, 제166회 나오키상과 제22회 본격 미스터리 대상 등을 수상하며, 모두 합쳐 9관왕에 올랐습니다. 일본 대중 문학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나오키상과 주요 5개 미스터리 부문을 석권한 작품은 일본 문학사 전체를 통틀어 『흑뢰성』이 유일합니다. 이 기록은 한동안 깨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네요.

『흑뢰성』은 일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패권을 눈앞에 둔 1578년, 여러 전공을 세우며 크게 중용됐던 무장 아라키 무라시게는 그해 10월 느닷없이 반역을 일으키고, 근거지인 아리오카성에서 농성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 찾아온 오다의 군사(軍師) 구로다 간베에를 ‘흑뢰성’, 즉 성의 지하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런데 성안에서 기괴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걱정한 아라키 무라시게는 어쩔 수 없이 구로다 간베에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 지하 감옥을 찾게 됩니다.

기록된 역사에 남아 있는 이 소설의 시작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어요. 아라키 무라시게가 승승장구하던 오다 노부나가에게 왜 반기를 들었는지, 구로다 간베에를 왜 당시 관습대로 죽이지 않았는지 아직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작가는 1578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이어지는 일 년의 시간에 불가능 범죄 네 건을 배치하고, 역사의 수수께끼를

해명하는 하나의 설을 제시합니다.

사방이 온통 전쟁뿐이라 죽음이 일상이었던 일본 전국시대. 작가는 그 생소한 시공간에서 살인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는 당위(當爲)를 절묘하게 만들어 냅니다. 농성 중인 아라키 무라시게와 지하 감옥의 구로다 간베에는 의뢰인과 안락의자 탐정의 관계지만, 전쟁에 휘말린 집단과 개인을 상징하기도 하죠. 둘의 윤리관은 강렬하게 맞부딪치고, 불가능 범죄가 해결되면서 작품은 역사에 기록된 실제 결말로 향하게 됩니다.

요네자와 호노부는 시공간이 다른 배경에서 달라지는 가치관과 그 차이에 주목해 왔던 작가예요. 작가의 말을 옮기자면 ‘지금, 이곳의 가치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흑뢰성』 또한, 진지한 역사 소설을 쓰고 싶었다기보다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가장 좋은 시공간을 선택했다고 밝혔죠.

역사 소설과 본격 미스터리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흑뢰성』. 너무나 낮은 시공간과 어려운 이름들에 주눅이 들 수도 있겠지만, 초반만 넘기면 어느새 빠져들게 될 겁니다. 강력하게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미스터리 장르 특유의 쾌감은 물론, 묵직하고 은은한 감동이 있습니다. 



『흑뢰성』
요네자와 호노부 | 리드비커 펴냄

영화로운 나날

「괴물」 내용과 형식은 같이 가야 한다



박지수 영화전문블로거

8살엔 영화관을, 20살엔 영화제를 처음 가봤습니다. 25살엔 원고료를, 30살엔 출연료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라라랜드」의 오프닝과 「헤어질 결심」의 엔딩을, 「기생충」의 이미지와 「원스」의 사운드를 좋아합니다. 한 영화를 백 명이 본다면 백 편의 작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작품을 잊지 않기 위해 네이버 블로그 '제이스의 피노키오'를 운영하며 계속 글을 씁니다.

영화는 내용과 형식의 이중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줄거리, 메시지 등 영화 안의 내용과 카메라 구도, 편집 방식 등 영화 밖의 형식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관객 상당수는 영화를 볼 때 줄거리를 중심으로 봅니다. 실제로 그걸 의도해 '완벽한 몰입'이 목적인 영화도 많죠. 그렇지만 영화 속 장면의 반대편, 즉 카메라 뒤에 서 있을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영화의 재미는 두 배가 됩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찍었을까?', '왜 이렇게 자르고 이어 붙였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영화 감상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작년 개봉한 영화 「괴물」은 예시로 들기에 더없이 좋은 작품입니다. 엄마 사오리는 아들 미나토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스스로 머리를 자르거나 신발을 한 짝만 신고 하교합니다. 급기야 미나토는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리고, 사오리는 담임인, 호리 선생님의 문제라 판단합니다. 화가 난 채 학교로 찾아가지만 호리 선생은 성의 없는 사과만 할 뿐이었고, 호리 선생은 되려 미나토가 친구 요리에게 폭력을 가한다고 주장하죠. 요리는 친구인 미나토의 결백을 증언하고, 호리 선생은 교직에서 물러납니다.

지금까지 줄거리를 보면 '괴물'은 호리 선생입니다. 엄마 사오리에게 호리 선생은 아들 미나토를 괴롭히고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관객도 사오리의 시점에서 사건을 바라봅니다. 자연스럽게 사오리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방관의 태도를 일삼는 선생과 학교에 답답하고 화나는 감정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영화가 시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두 번째 단락은 호리 선생의 시점입니다. 성실하고 의욕적인 새내기 선생님 호리는 학생들을 잘 이끌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히는 듯한 정황을 포착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의 주장은 그 나름대로 진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며 교사라는 직업도,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에게 ‘괴물’은 미나토일지도 모릅니다.

영화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미나토의 시점으로 펼쳐집니다. 분명히 같은 사건을 보여주지만, 다른 두 시점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른은 모르는 이야기, 보호자 역할을 하는 담임 선생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일 엄마도 보지 못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괴물’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집니다.

영화의 제목은 ‘괴물’입니다. 영화에서 제목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 영화 전체를 함축하는 말이거나, 감상에 힌트가 될 말이기 때문입니다. 관객은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자연스럽게 괴물이 누구인지 찾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누가 봐도 괴물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역시 자연스럽게 관객은 그 인물에게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단락에서 그게 오해였음이 밝혀집니다. 이제 관객들은 다시 의문을 가집니다. ‘그럼 괴물은 누구지?’ 그리고 또 다른 의문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인물이 있을까?’ 영화를 보며 관객이 오해를 극복하고 진실에 도달하는 과정은, 극 중 인물인 아이인 미나토와 요리에 대하여 어른인 엄마와 선생님이 오해를 딛고 진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관객은 영화 줄거리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영화 형식을 빌려 체험합니다.

이는 마지막 대목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영화는 미나토·요리, 사오리·호리를 교차 편집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미나토와 요리만을 비춥니다. 두 아이를 바라보는 관객은 어쩔 수 없이 어른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제야 진실을 마주한 관객은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진작 오해를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생깁니다. 복잡한 감정을 남겨둔 채 스크린은 하얗게 암전됩니다.

하나의 사건을 여러 시점으로 보여주며 관객에게 정보의 제한을 두는 구조는 반전 영화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괴물」이 여타 반전 영화와 다른 점이라면 ‘뒤통수’ 자체의 재미보다는, 오해와 진실이 영화 전체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용과 형식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맞아떨어지기에 영화의 메시지는 관객의 마음에 더욱 깊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영화 「괴물」 포스터

TRENID

트 렌 드 가 보 인 다

천년 넘게 영롱히 빛나는 나전칠기, 한류의 중심에 서다



강명효, 자유로운 모비딕(견칠), 2022, 개인 소장

나전칠기란?

나전칠기(螺鈿漆器)는 함/장롱/궤/반닫이/서안 등 나무로 만든 가구, 금속, 종이에 자개를 붙이고 옷칠로 마감하는 전통 공예 기법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기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나전칠기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주재료는 백골기물(白骨器物)¹⁾과 자개, 옷칠이다. 자개는 진주·소라·전복 등의 껍데기 안쪽을 얇게 떼어내고 퍼서 가구와 같은 기물에 붙여 나전칠기 공예를 할 수 있도록 반듯하게 만든 패다. 옷칠은 6월 중순에서 10월 하순까지 단계적으로 옷나무에 갈로 상처를 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수액을 채취해 만든다. 채취한 수액을 그대로 쓰는 생칠과, 정제해 사용하는 주합칠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안료를 넣어 검은색과 붉은색 옷칠을 만들어 써왔는데 최근에는 백색은 물론 다양한 색옷칠이 제조돼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옷칠은 나무·금속·종이 등 다양한 소재에 할 수 있는데, 옷칠하면 수백 년 이상 변하지 않고 해충이 방지돼 보존성이 매우 뛰어나다.



나전 대모 칠 국화 넝쿨무늬 함, 고려 12C,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나전칠기의 역사

우리나라는 청동기시대 말기에 옷칠이 사용된 흔적이 남아있고, 삼국 시대를 거쳐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수준 높은 옷칠기를 만들어 사용했다. 11C 고려 문종 때 요(遼)나라에 나전기(螺鈿器)를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이 조선 시대 문헌인 『동국문헌비고』에 나와 있고, 12C에는 고려의 나전칠기 제품이 해외 교역품으로 빈번하게 거래되던 것이 각종 역사서에 적혀 있다. 조선 시대에는 나전칠기가 더욱 활

1) 백골기물(白骨器物): 옷칠이 가능한 다양한 소재로 만든 물건, 칠이 되어 있지 않은 것

발하게 제작돼 화려한 규방 문화를 꽃피웠다. 일제 강점기 때 주름질²⁾을 국내에 도입해 더욱 정교하고 세련된 자개 디자인을 가능하게 만든 김봉룡에 이어, 현재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나전칠기장인 이형만까지 나전칠기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형만, 흥배문 연상, 2022, 개인 소장

나전칠기가 한류 트렌드로 부상한 이유

2015년과 2017년, 영국의 현대 예술가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가 황삼용의 작품 「조약돌」을 각각 2점씩 산 것이 화제가 되면서 나전칠기가 한류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가 국악을 사용한 음원을 발표하거나 뮤직비디오에 한복을 입고 등장하고, 사극 등 여러 드라마에 나전칠기가 소품으로 사용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가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처럼 나전칠기가 트렌드로 부상한 이유는 한류 바람을 주도하는 대중음악과 드라마의 힘이 크다.



황삼용, 이익중(옷칠),
조약돌(2015 충주국제공예비엔날레)



하인선, 소풍(한지에 자개, 옷칠), 2021, 개인 소장

하지만 나전칠기가 새로운 한류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것은 나전칠기 디자인을 전통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소재를 실험하며, 현대의 새로운 감성을

표현하려는 작가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작가들은 전통적인 소재인 나무나 금속을 넘어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수지를 이용하거나, 한지에 자개로 그림을 그리듯 붙이는 등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강명효 자개디자이너

개인 작업실 ‘현목 공방’을 운영하며 2023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나전칠기장 이형만과 그 제자들이 함께한 제1회 <나전애>展에 참여했고, 나전칠기 작품을 디자인하는 내용을 담은 에세이 『날마다, 자개』를 출간했다.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기획과 편집을 해왔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출판기획을 나전칠기 작업과 병행하고 있다. (페이스북 @Myeonghyo Kang)

2) 주름질: 디자인한 모양대로 자개를 싯톱으로 잘라 기물에 붙이는 기법

생각하는 그림

구정(舊正)이 아니라 설날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쯤만 해도 우리는 설날을 설날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구정(舊正)'이라 부르고, 양력 1월 1일을 '신정(新正)'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구(舊)'와 '신(新)'이 말머리에 놓이면 각각 '오래되어 낡거나 낡아 없애야 하는 것'과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이나 받아들여야 할 것'을 뜻합니다. 즉, 일제는 설날을 옛 명절이자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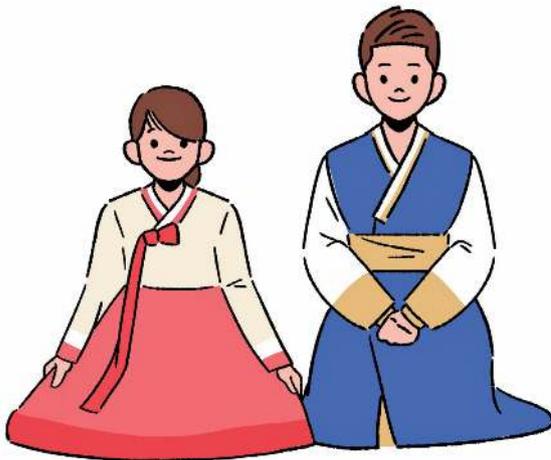


일제는 설날을 구정이라 부르고, 설날을 쇠지 못하게 조업을 강요하고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를 없애버리려는 일제의 잔혹한 계획에도 선조들은 민족의 고유한 전통인 설날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설날 즈음만 되면 매서운 일제의 눈을 피해 곳곳이 명절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1921년 매일신보의 기사를 보면, 일제 강점기 설날의 분위기가 묘사돼 있습니다. 아침부터 거리는 복잡했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설빔*을 장만하고자 아이들과 옷·신발가게에 들렸습니다. 또, 설날을 맞아 집이나 저잣거리에 모여 꿩고기 등 잔치 음식을 즐겼습니다.

* 설빔: '설'과 명절이나 잔치 때 새 옷으로 치장하는 일을 일컫는 '비움'이 합쳐져 줄어든 말로, 설날을 맞이해 새로 단장해 입는 명절옷을 말한다. 현재는 설날뿐만 아니라 명절에 마련해 입는 새 옷을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암암리에 설날을 즐기는 문화는 있었지만, 우리는 설날을 설날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구정이 진정한 설날로 되돌아간 것은 광복된 지 한참 지난 1989년에 설날(정월 초하루·음력 1월 1일)을 ‘민족의 날’로 지정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양력 1월 1일도 몇십 년 동안 신정이라 불리며, 설날의 개념으로 어느 정도 자리잡힌 후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구정/신정’이란 단어는 광복 후에도 계속 사용됐습니다.

신정
구정



‘양력설’, ‘음력설’ 또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설’은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대보름(음력 1월 15일)까지의 기간을, ‘설날’은 정월 초하루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력 1월 1일’은 신정이 아닌 ‘새해 첫날’로, ‘음력 1월 1일’은 구정이 아닌 ‘설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 보내는 설날 연휴에는 이렇듯 일제로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조상들의 아픈 역사가 묻어 있습니다.

공군인 여러분! 설날 연휴에는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국가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되새기길 바랍니다! 



그림 MAVIN(정오성) 작가

동화 같은 색채와 따뜻한 표현기법과 내용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일러스트레이터, 2018년부터 MAVIN(마빈)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다. 세스코&무신사 협조 전시 참여, 스트레이키즈 뮤직비디오 아트워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인스타그램 @os.mavin)

책 읽는 공군 사막과 바다

병장 이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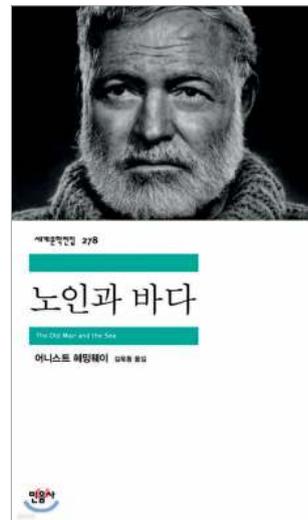
도망과 외면 끝에 돌아보지 않는 삶과 마주했다.
나아가고, 넘어서고, 순수해지기 위해 책을 읽는다.

우리는 반복되는 업무, 비슷한 일상, 직선의 회색빛 콘크리트에서 사막 같은 삭막함과 모종의 갈증을 느낀다. 세상은 더 감동과 변화, 생기로 흘러넘쳐야 할 것 같다. 그런 삶을 추구한다. 하지만 일이 고되고 관계는 피로하다. 매일 일을 해치우고 집에 돌아온 우리의 의식은 피로에 절어 보상을 바란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술과 함께 야식을 먹고, 눈이 감기면 잠이 든다. 쏟아지는 빗물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우리의 의식은 동굴 속에 누워 있어야 한다. 아픈 몸을 일으키는 것은 의학의 일이다. 아픈 의식을 치유하는 것은 자신만의 일이다. 치유에는 과정이 있고, 도구가 필요하다. 『노인과 바다』가 누군가에겐 그 과정이자 도구가 되길 바란다.

이 책은 헤밍웨이의 대표 소설이자, 유작(遺作)이다. 멕시코만과 닿아있는 쿠바의 아바나 지역, 그곳에서 바다 낚시로 삶을 이어가는 한 노인 ‘산티아고’로부터 이야기는 시작한다. 그는 경험은 많지만, 판잣집과 작은 조각배, 낚시 도구 그리고 낚시를 도와주는 소년 ‘마놀린’이 전부인 가난한 낚시꾼이다. 그는 84일째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한다. 처음 40일은 소년과 함께했지만 이후 소년은 부모의 뜻에 따라 다른 배로 옮겨 탄다. 85일째 되는 날 노인은 큰 고기를 낚기 위해 홀로 조각배를 타고 먼바다로 나선다. 사흘간의 사투 끝에 조각배보다 큰 청새치를 잡는다. 하지만 돌아가던 중 상어 떼를 만나 저항하지만, 결국 청새치의 살점을 뜯기고 앙상한 뼈만 가지고 항구로 향한다.

이 이야기는 패배의 이야기다. 가난한 노인은 수십 일간 고기를 낚지 못했고, 기껏 잡은 대물마저 상어 떼에게

뜯겨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낚시줄을 몸에 감아 조각배보다 큰 청새치의 힘을 밤낮으로 견뎌냈으나, 그 살점을 한 마리의 상어가 뜯어갔을 때 그는 체념을 생각했다. 사실 고기를 잡은 적이 없다고, 한낱 꿈이라고. 그러나 그는 곧바로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다. 의지와 정신, 무형의 가치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고기와 새, 바다와 별은 그와 형제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혈족으로 바라보는 그의 눈은 삭막한 사막이 아닌, 생명력과 강인함이 넘치는 바다가 어울린다. 우리는 그에게서 강인한 의지로 삶을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끌 동력과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시선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을 배운다면 삶을 더 생동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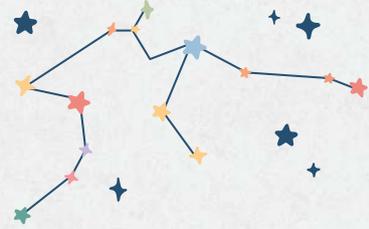
『노인과 바다』
이재명 대표 추천 도서
민음사

밤하늘의 반짝이는 물병

Date . 2024 / 01 / 07

2월 초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누나에게 아기의 별자리는 물병자리일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쁜 일이 이어질 것이라는 물병자리의 운세를 덧붙여 말해주었습니다. 아이같이 웃음을 짓는 누나의 표정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병자리는 어떻게 생긴 별자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물병처럼 생겼을까? 이 별자리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불현듯 생겨난 궁금증은 저를 물병자리 신화로 이끌었습니다. 옛날 트로이에는 '가니메테'라는 미소년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워낙 독보적 이었는지 하늘의 신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림포스의 왕인 제우스도 이 소년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독수리로 변하여 트로이로 찾아가게 됩니다. 수려한 외모의 가니메테를 마주한 제우스는 그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천상계로 데려가 신들에게 마실 것을 따르는 역할을 맡기게 되었고, 하늘로 올라간 가니메테는 결국 물병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얼마나 미남이었길래 그 대단한 신들도 반해버렸을까요. 솔직히 조금 부러웠습니다. 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늘의 별자리가 된 가니메테는 과연 행복했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데려가기 전에 한 번은 물어봤을까요? 먼 옛날, 별들을 이어 신화를 만들던 그 대화 속에 저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 시절의 하늘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떠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쓸데없이 질투도



났습니다. 귀여운 조카가 기다려진다는 심심한 인사말을 남기고 집으로 가는 길,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입김 사이로 희미한 별들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도시의 차가운 인공 빛으로 별 보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몇 안 되는 별들을 하나둘 이어 새로운 별자리를 만들어봅니다. 헤드셋 자리, 커피콩 자리. 태어날 조카에게 오늘 만든 별자리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다음에 봤을 때 그 별자리를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

오늘의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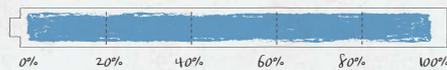
MEMO



별뚱별을 봤을 때
별 소원을 생각해줘야지!



오늘 하루 만족도



토닥토닥 2월의 목소리

어느 해 2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와서 성우가 되어보겠다고 달려들었다. 목소리 연기는 얼핏 쉬워 보인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은 객석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눈빛 속에서 자기 역할에 몰입해야 하고, 카메라 앞에 선 배우들은 카메라 뒤쪽 수많은 제작진의 눈길을 견뎌야 한다. 반면 성우는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고립된 녹음 부스 안, 한적하고 고요한 환경 속에서 작업한다. 무엇보다 대본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저주 받은 암기력을 가진 나에게 정말 큰 이점이다. 적당히 특이 하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일을 원했던 나는, 하면 할수록 이 일이 나와 참 잘 맞는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잘 맞는 만큼 쉬운가 하면, 그렇지 않다. 대본을 보고 연기한다고 해서 대본을 보고 읽는 티가 나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성우의 능력은 대본을 보고 읽으면서도 얼마나 자기 말처럼 느껴지도록 하는가에 달려 있다. 방금 받은 대본도 몇 달을 지지고 볶으며 연습한 것처럼 소화해내는 사람이 베테랑 성우다. 찰나의 순간에 대사의 핵심과 서브 텍스트를 파악하고,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투를 설정해 진심을 담아 연기하면서, 그 와중에 재기발랄한 애드리브까지 구사하는 것이 성우의 실력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만 잘 잊히는 세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나도 한때는 햇병아리였다는 것.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그렇게 긴장되던 녹음실의 적막한 공기가 편하게 느껴지는 시점이 온다. 그 편안함에 속아 평소 해야 할 훈련을 게을리하면 청취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순간은 부지불식간에 닥칠 것이다.

둘째, 연차가 쌓일수록 기대치도 올라간다는 것. 마음은 신인의 때와 같이 지키되 실력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성장이 멎으면, 그것은 선 것이 아니라 실상 쓰러져 가는 것이다.

끝으로 나에게 쉬운 것은 남에게도 쉽다는 것. 어떤 대본은 쉬워 보인다. 그런데 쉬운 대본은 누구나 쉽게 소화해내므로, 그렇게 뻥하게 해서 나를 차별화할 수 없다. 쉬워 보일수록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대본을 외우지 않아도 되니,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마저 잊기가 쉽다. 이 일의 어려운 부분이다. 그것은 일상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늘 가까이 머무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잊기 쉽고, 어렵게 얻어낸 것조차 쉽사리 당연해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참 다행이다. 해마다 2월이 다가와 초심을 잊지 말라고 속삭여주니 말이다. 다시 졸업 시즌이다. 새로 시작할 때다. 



심규혁 성우

2010년 대원방송 2기 공채 성우로 데뷔. 영화「알라딘」의 「알라딘」, MCU 「스파이더맨」, 게임「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에코」 등 다양한 캐릭터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10년 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목소리를 빌려주다가 자신의 이야기도 전하고 싶어져 글도 쓰고 있다. 『목소리가 하는 일』을 썼다.

마음의 소리

배준혁

xiq5i**@naver.com

가장 어둡고 가장 밝은, 높은 하늘을 수호하는 공군 여러분. 저는 속도도 다르고, 하늘 위 구름을 가르며 날아가는 항공기를 바라보는 것이 제가 공군과 함께하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국가를 위한 충성으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도 마음속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장지휘

jangjih**@gmail.com

<내 옆의 공군인>의 전투기 교관 조종사이자 아마추어 화가로 활동하는 이진용 소령님께 깊은 인상과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뭇 다른 두 영역 사이에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교집합이 보였습니다. 저 역시 식물학 연구란 본업에 충실하며 좋아하는 산악등반을 꾸준히 성취해나가고 싶다는 다짐을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장인선

jis535953**@nate.com

가수 소각소각 씨의 팬이었는데 월간 『공군』의 ‘우리 아마도 청춘’을 보며 노래를 다시 찾아 들었습니다. 귀여운 반려묘 냥봉이도 잘 봤습니다. ‘그때가 좋을 때다’라는 진리는 늘 시간이 지난 후 깨닫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도 언젠가는 과거가 됩니다. 청춘이란! 어느 한 시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이 찬란한 청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AF

대한민국 공군은 독자님과 늘 소통하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보내주신 응원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군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F

좋아하는 일을 찾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식물학 연구라는 본업에서의 성취는 물론, 산악 등반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길 바랍니다.

AF

현재는 영어로 ‘present’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 선물이라는 뜻이겠조? 장인선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물 같은 현재에 충실하며 빛나는 오늘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접수
방법



마음의 소리

월간 『공군』 홈페이지(afzine.co.kr) <독자의견>에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기념품 수령을 위한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책 읽는 공군 /공군인의 하루

공백 포함 1,200자/1,100자 내외, 매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전자우편 전송
(인트라넷: uk0319@af.mil)



구독문의 QR코드



독자의견 QR코드



월간
공군

548